

□ 순 방 □

어린이회관 도서실



(도서실 전경)

한눈으로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남산 중턱에 우뚝 솟은 어린이회관은 사랑스러운 우리의 새싹들이 자라나는데 많은 꿈과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보금자리로 순방자는 이 어린이회관의 도서실 문을 들어섰다.

이 어린이회관에는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선진된 과학기술의 지식을 배우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예술을 스스로 익히고 반공사상을 굳건히 하여 그들이 슬기롭고 명랑하고 굳세게 자랄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가지 시설과 부서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 회관 15층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림책과 동화집을 비롯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각종 참고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도서실이 있다.

이 도서실은 독서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동화와 꿈의 세계, 새로운 지식의 세계속에서 생활하므로써 어린이들이 자라가며 부디치게 될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독서를 생활화시키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주고 있는 곳이다.

◆ 시 설 ◆

“ㄱ”자형으로 된 120명의 도서실내에는 국민학교 저학년(1,2학년)과 어머니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자열람실을 비롯하여 국민학교 고학년(3,4,5,6 학년)을 위한 저학년 열람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고학년 열람실, 그리고 회관내의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직원열람실이 있다.

각 실별로 좌석수는 고학년 열람실 36석, 저학년 열람실 24석, 직원열람실 12석, 그리고 모자열람실이 56석으로 되어 있다.

직원열람실은 도서실직원의 사무실을 겸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열람실에는 어머니와 어린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폭신한 안락의자를 마련해 놓아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실내조명을 비롯하여 냉난방시설 및 방음장치가 완전히 되어있어 어린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책을 읽고 공부하도록 설비되어 있다.

◆ 장 서 ◆

본 도서실의 장서구성은 주로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동도서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정리 하여 놓았는데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도교사용 도서는 주로 전문적인 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동용도서가 7,420권 지도교사용 도서가 3,472권으로 총 10,892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은 아동용 잡지 7종과 전문잡지 및 주부용 잡지 23종이 있으며 신문은 아동을 위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일간지 10종과 주간지 3종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서실에는 지도, 사진 및 비책자자료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시청각 실과 각종 자료실이 회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다지 도서실을 찾는 독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초창기의 도서실로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앞으로 구입할 도서를 정리, 배가할 서가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만여권의 책으로 거의 다 차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도서실의 확장이 큰 문제로 대두될 문제점이라 하겠다.

◆ 운영 및 봉사 ◆

본 도서실은 회관 개관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다음 날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개관하고 있다. 근대의 도서관이 사회교육의 기능을 겸비하여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만을 보존하고 있는 개념을 벗어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질문이나 문제점을 직접 제공하여 어린이의 개성신장과 자율정신의 발전을 위해 개가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실에 들어 선 어린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므로 독창적으로 어린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조성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곳은 우리 나라에 어린이회관이란 시설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구경을 오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매일 매일 들이닥쳐 본래 도서실에서 의도하고 있는 충분한 Service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

시 회관전체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도서실은 책을 진열해 놓은 하나의 전시장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관의대출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대상자가 너무도 광범위하여 도저히 관의대출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한편 이용대상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이 도서실의 조직 및 인원구성을 보면 빈약한 느낌을 준다. 현대 교양부에 소속되고 있는 도서실에는 3명의 여자직원이 이용자들에게 Service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는 도서관학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만여권의 장서를 정리하고, 이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수시로 물려오는 구경꾼들을 상대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Service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저 책을 모아 놓고 전시하는데 불과한 것 같다. 또한 현재의 다른 도서관의 조직을 보면 도서실은 따로 독립하여 조직의 책임기관 바로 직속에 두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이 도서실의 봉사대상이란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회관 전체의 직원이 그 봉사의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조사하는 연구부서로서 좀 더 상위의 부서에 속하므로써 회관전체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특 징 ◆

어린이도서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서실이 소속되어있는 회관 전체가 던져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수가 있겠다. 성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Category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그들의 꿈의 날개를 마음껏 퍼볼수 있는 곳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와서 책을 볼 수 있는 모자도서실의 설치를 들 수 있겠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만화는 무조건 보지 못하게 한다든가, 오직 학교공부에만 어린이의 전념을 쏟게 하는 것을 벗어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도서실에 들어와 자녀들의 연령과 사고방식에 알맞는 책을 지도교사와 의논을 하여 읽게하고, 옆에서 돌보아 줌으로써 자녀들이 올바른 성격의 형성과 나이에 적합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어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 도서실의 사업계획 ◆

특수한 목적하에 건립 설치된 도서실이기에 다른 도서관에서는 하지않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독서감상문 콘테스트에 당선된 어린이가 자기 작품을 발표하는 모습)

1) 독서감상문 콘테스트

이 콘테스트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실제로 옮겨 적어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독서 법과 생활태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인데 지난 제16회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제1회 대회를 실시하여 그 성과가 대단하였으며 앞으로는 년 2회 이상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2) 아동도서 전시회

범람하고 있는 불량만화와 저속한 아동도서의 폭주 속에서 좀 더 아동들에게 적합하고 알맞은 도서를 선택 전시함으로써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양서(良書)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어도 년1회 이상 실시 될 것이다.

3) 책보내기 운동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이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이나 특히 도서지방과 산간벽지에서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내 줌으로써 서울의 어린이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자라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책을 모아 년 2회 정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4) 작곡 동화집 수집

외국의 우수한 아동도서(동화집)를 수집 보관, 전시하므로써 어린이들에게 세계 각국의 동화집을 소개함은 물론 명실공히 어린이도서(우리나라에서의)의 자료센터 및 보존도서실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 이야기 한 것 이외에도 한국의 우수한 아동도서를 선정, 표창한다든가 다독자 및 모범이용자 표창 등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있으나 이제 처음 걸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도서실이므로 여러가지 벽찬 계획부터 세우기에도 좀 이른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인도의 Ranganathan이 도서관(실)은 성장하는 조직체(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라고 말했듯이 앞으로 빠른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